



UNEP FI Korea Group Newsletter

2012 April

Contents

- Highlight & 뉴스
- UNEP FI 출판물
- UNEP FI 행사
- UNEP FI 트레이닝
- UNEP FI 파트너 뉴스
- UNEP FI 커뮤니티
- UNEP FI KG 뉴스



자연자본선언, 리우+20을 향해 전진



Natural Capital Declaration

스탠다드차타드, 유니크레딧, 사브린 뱅코프의 서명으로 자연자본 선언에 서명한 CEO 수가 15명으로 늘어났다(4월 2일 기준).

자연자본선언은 UNEP FI, 영국의 글로벌 캐노피 프로그램(GCP), 브라질의 Fundação Getulio Vargas (FGV) 교육센터가 공동으로 작성했다.

UNEP FI의 자연자본선언 사무국 직원인 Ivo Mulder는 3월 자연자본선언을 공개하기 위해 방문한 상파울루에서 “이러한 진척은 금융기관들이 자연자본의 개념과 지속가능성 실현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자연자본선언은 리우+20 지구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자연자본 고려 사항을 금융 기관들의 상품과 서비스에 포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금융부문의 선언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 클릭](#)

UNEP FI News

지속가능보험원칙(PSI), 리우+20에서 발표 준비 중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UNEP FI의 지속가능보험원칙(PSI)이 곧 리우+20에서 발표된다.

2011년 UNEP FI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미, 중미, 중동과 북아프리카, 북미, 오세아니아에서 초기 자문회의를 소집해 PSI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얻었다. 보험산업, 정부, 규제기관, 비정부 기구, 재계 협회, 학계, 과학 커뮤니티의 500명이 넘는 고위직 대표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UNEP FI에서 PSI를 주도하고 있는 Butch Bacani는 “PSI는 보험산업이 지속가능하고 내구성 있는 사회 건설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SI는 리우+20의 목표 또한 지지하며, 보험산업과 정부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지속가능보험원칙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된 보험산업 내의 리스크와 기회를 보다 더 잘 고려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세계적이고 자발적인 체계를 제공한다.

곧 자세한 소식 전달 예정

UNEP FI 발간물 온라인 환경 서점 Earthprint에서 열람 가능



EarthPrint.com
The World's Leading Environmental and Agricultural Bookstore

UNEP FI가 간행물 배포를 위해 온라인 환경서점 Earthprint와 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UNEP FI의 모든 간행물을 Earthprint 사이트(www.earthprint.com)에서 하드카피로 주문할 수 있게 됐다.

1999년에 설립된 Earthprint는 폐기물 처리와 건강부터 도시 환경과 금융까지 환경의 모든 부분을 다루는 발행물을 전문적으로 판매 및 유통하고 있다.

*UNEP FI의 가장 최근 발간물인 *개발도상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재정적 지원*을 하드카피로 구매하려면 [여기 클릭](#)

자세한 정보는 [여기 클릭](#)

자연자본의 중요성에 대한 CEO 브리핑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로 제공



UNEP FI의 *CEO Briefing Demystifying Materiality* 보고서가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로도 제공된다.

2010년에 최초로 발행된 자연자본에 대한 본 발행물은 리우+20 에서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UN 지속가능개발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주제들과 여전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

본 보고서는 금융부문 종사자와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독자들에게 자연자본이 어떻게 금융 상품과 서비스 내에 고착화될 수 있는지 알리기 위해 작성되었다. 금융부문이 인식하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 리스크에 대한 노출 정도를 조사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전체 다운로드 [여기 클릭](#)

UNEP FI, 리우+20으로 행보



세간의 모든 관심이 증대한 역사적 순간이 될 UN 지속가능개발 회의(리우+20, 올해 6월 개최)로 모아지고 있다. UNEP FI 또한 리우+20에 참가하며, 여러 관련 행사를 준비하는 중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포럼

6월 15일~18일, 리우데자네이루, Windsor Barra 호텔. 에서 UN 글로벌콤팩트가 UNEP과 협력하여 리우+20의 공식적인 민간부문 플랫폼이 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포럼을 개최한다. UNEP FI는 본 포럼에서 두 개 세션을 열 계획이다.

6월 17일: "Green Gold: Financing the way forward"에서는 은행, 보험사, 투자자들이 녹색 비즈니스, 기업, 산업과 녹색 경제로의 변화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식견이 제공된다. 세션에는 UNEP 녹색경제보고서 중 금융을 다룬 부분이 활용될 예정이다.

6월 17일: "1992년부터 2012년: 금융부문 지속가능성 주요 흐름의 20년"은 금융기관들의 일상 업무 전략과 운영에 지속가능성 이슈를 적용하는 작업의 진행상황과 동향을 강조하여 진행될 계획이다. 지난 20년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 과제가 평가된다.

자연자본선언 발표

6월 18일, 리우데자네이루, Windsor Barra 호텔. UNEP FI와 협력기관들이 리우+20에 맞추어 자연자본선언(자연자본 기준을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성명서)을 발표한다. 이 행사는 기업 간부들이 전략적 그리고 일상적 관점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자연자본 이슈와 기업들의 관련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지속가능보험원칙 발표

6월 19일, 리우데자네이루, Sofitel Rio Copacabana 호텔. UNEP FI의 지속가능보험원칙이 리우+20 시작 전일에 발표된다. 보험산업의 주요원칙인 지속가능보험원칙은 UN PRI나 UN 글로벌 콤팩트와 같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UN의 다른 글로벌 이니셔티브들과 상호보완적이다. 본 행사에서는 국제보험회와 브라질보험연합이 공동 주최하며, UN과 정부 인사, 그리고 전세계의 선진 보험사의 CEO와 간부 수백 명이 화합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 클릭](#)

프로모션: UNEP FI 회원들과 시민 사회 대표들에게 모든 UNEP FI 강좌에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www.unepfi.org/training

기후 변화: 금융 부문의 위기와 기회 온라인 강좌



다음 강좌: 5월 7일~5월 28일 (영어)

기후 변화 현상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력 향상의 필요성에 따라 개설된 본 강좌는 수강자들이 기후 변화, 국제 기후 변화 제도의 구조 이면의 과학, 그리고 은행·투자·보험계를 아우르는 금융 시장이 그에 따른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력을 갖추게 할 것이다.

자세한 정보와 등록은 [여기 클릭](#)

환경·사회 리스크 분석(ESRA) 온라인 강좌



다음 강좌: 5월 14일~6월 1일(영어)/6월 11일~6월 29일(스페인어)

본 강좌는 3주간 상호작용적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 상업용뱅킹, 펌뱅킹, 투자금융, 소매금융에 종사하거나 개발도상국 또는 신흥 시장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자와 분석가를 특히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정보와 등록은 [여기 클릭](#)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자본 조달(FEEE) 온라인 강좌



다음 강좌: 6월 11~ 6월 29일 (스페인어)

본 강좌의 목적은 특히 자산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성 프로젝트 자본 조달과 투자를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변화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자세한 정보와 등록은 [여기 클릭](#)

News from Partners

TBLI 2012 아시아 컨퍼런스 - 5월 24일~5월 25일, 중국 홍콩



최고의 연례 글로벌 네트워킹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임팩트 투자 학습 행사이다. 2012년의 주제는 "Why Occupy? Try TBLI"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 클릭](#)

UNEP FI 커뮤니티에 2개 기관 신규 가입



멕시코의 대표적인 녹색 은행 CIBanco가 3월 중순 UNEP FI 성명서 (금융기관들의 지속가능발전 참여 의지)에 서명하면서 UNEP FI에 가입했다.

Jorge Rangel de Alba CIBanco 이사회장은 “멕시코에서 첫번째 녹색 은행으로서 200개가 넘는 기관들과 30개 이상의 라틴아메리카 금융기관들이 금융 활동에서의 모범적인 지속가능 사례를 규명하자는 공통된 목표를 가진 커뮤니티에 가입하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소감을 밝히고, “우리는 지속가능한 금융의 발전을 원하는 세계 금융계 그룹의 비전을 공유한다.”라고 말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시가총액으로 규모가 가장 큰 Guaranty Trust Bank가 3월 초 UNEP FI의 가장 최근 회원기관이 되면서 UN과의 협력 관계 강화에 나섰다.



Guaranty Trust Bank plc
RC 152321

Guaranty Trust Bank는 영어권인 서아프리카의 모든 국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Guaranty Trust Bank가 보여준 UNEP FI 파트너십의 근간인 지속가능발전 성명서에 대한 참여 의지는 현재 Guaranty Trust Bank가 활동 중인 지역에서 지속가능성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DGB 금융그룹, 전 임직원(2200명) 탄소포인트제 가입

DGB금융그룹 전 임직원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공무원 및 공공부문 종사자가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와 녹색실천 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린카드'에 가입하도록 하는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탄소포인트제에 6만3924가구에 1억9800만 원을 제공했다. 이는 온실가스 4600톤 CO₂를 감축하는 결과다. 올해는 탄소포인트제 12만 가구 가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인센티브 예산도 4억4000만원으로 증액했다. 또 탄소포인트제 확대 방안으로 도시가스를 추가했고, 5월까지 전 공무원 및 공공부문 종사자의 탄소포인트제 및 그린카드 가입 확대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용환 대구시 환경녹지국장은 "공공부문 종사자가 먼저 솔선수범해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가입하고 실천한다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해외서 사회적 책임활동 기업 인정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은 홍콩 사회봉사연합회로부터 케어링 컴퍼니(Caring Company)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홍콩지점이 지난해 6월 주홍콩총영사관이 주최하고 외교통상부가 후원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두 번째다.



홍콩지점은 2008년부터 홍콩 현지사회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가톨릭 수녀원, 무의탁 노인들이 거주한 어촌마을, 독거노인 거주지, 홍콩가정복지회 등을 방문해 활발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해외 진출 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와의 자매결연, 우리금융그룹의 계열사 및 고객사와 함께하는 사회봉사활동 등 보다 다양한 현지 맞춤형 사회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금융그룹, 시흥에 제3호 'KB탄소중립의 숲' 조성

KB금융그룹은 18일 계열사 사장단 및 임직원과 시흥시민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시흥시 옥구공원 일대에 1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 'KB탄소중립의 숲' 조성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의 숲은 기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나무를 심는 환경보호프로그램이다. KB금융그룹은 사회공헌 4대 핵심테마 중 하나로 '탄소중립의 숲' 조성에 나서고 있다. 2009년 경기도 용인시, 2011년 경기도 안산시에 이어 올해 시흥시에 세 번째로 탄소중립의 숲이 조성됐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KB탄소중립의 숲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동시에 사회공헌 사업을 실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전개하는 등 녹색금융 경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명세서, 재생지로 전면 교체

신한카드사는 신한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 재생지 명세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신한카드측은 자사에서 명세서용으로 1년에 약 1천40톤의 종이를 사용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재생지 명세서를 도입함으로써 1년에 약 1만 7천680그루의 수령 30년 소나무, 2만 5천212톤의 물, 378만W의 전기를 아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100% 국내산 재활용펄프를 사용함으로써 83만달러에 이르는 외화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새 종이에 비해 백색도가 떨어지는 단점은 있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 재생지 명세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런 취지에 공감해 고객들도 흔쾌히 찬성해 주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명세서 외 각종 안내장 등에도 재생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銀, '베트남 맹그로브 나무심기' 행사

하나은행(은행장 김종준)은 지난달 말 베트남 타이빈성 남푸 인근에서 맹그로브 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맹그로브 나무는 쓰나미 등 자연재해로부터 해안 지역 보호,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나 지구 온난화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하나은행 임직원 10명과 베트남 인근 주민 30명이 참여해 2000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자금은 하나은행 임직원의 '걷고 기부하기' 행사를 통해 마련한 1000만원과 하나은행에서 매칭그랜트 형식의 동액 기부금으로 2000만원을 모아 UNEP(국제연합환경계획) 한국위원회에 기부해 마련했다.

'걷고 기부하기'는 하나은행이 2009년부터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보계로 본인의 걸음수를 등록하고 열 걸음 당 1원씩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그동안 적립된 기부금은 '70억 그루 나무심기', '아이티 긴급구호금', '다문화가정 후원' 등 환경과 나눔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곳을 지원하는데 쓰여졌다.

김용한 수출입은행장 “수출기업 상생협력 지원 강화할 것”

김용한 한국수출입은행장은 17일 경상남도 창원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경남지역의 14개 수출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수출 대기업에 납품하는 신성장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녹색·신성장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선도해 나가는 국책은행의 역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우종인 BHI 대표이사, 방기석 삼우KJS텍 대표이사 등 경남지역 14개 수출 중소·중견기업 CEO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대기업과 해외에 동반진출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상생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행장이 지역별 수출기업 CEO를 초청해 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이번이 17번째. 고객 중심의 경영을 통해 수출기업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김 행장의 행보에 발맞춰 수출입은행은 올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지난해보다 7% 가량 증가한 총 1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 기관 대상 자연자본선언 웨비나 진행



지난 12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한국 기관들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 자연자본선언 웨비나가 진행되었다.

회원기관 중에서는 국민은행, 삼성화재, 신한은행, 우리은행, 현대해상이, 비회원기관 중에서는 KDB투자증권과 IBK기업은행이 참석하였으며, 정부 관련 기관 중에서는 환경부를 비롯하여 주UN대한민국대표부와 KEITI가 참석했다. 웨비나는 자연자본선언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참석 기관들의 Q&A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20일에 발송된 웨비나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의 UNEP FI 자문 및 인터뷰 수행



지난 2일, 삼성지구환경연구소 및 중앙일보, ERM Korea가 제네바 UNEP FI를 방문하였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의 주관 아래 발족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 지속가능금융분야에서 UNEP FI가 축적하고 있는 경험 및 지식에 대해서 간담을 하며 심도있는 나눔의 장을 가졌다.

국내/외 대표 기업들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삼성의 지속가능개발 관련 기업 연구 자료의 항목 중 하나인 금융 분야에 대해 유엔의 유일한 지속가능금융 전문 기구인 UNEP FI와의 나눔을 통해 현재 지속가능금융분야의 핫 이슈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였으며, 현재 한국 지역의 녹색금융에 대한 견해를 나누기도 하였다.

동 프로젝트의 진척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도움 및 피드백을 제공하며 금융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지구환경을 구축하는 일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한다.

UNEP FI 사무국과 연락하시려면 [info \[at\] unepfi.org](mailto:info_lat@unepfi.org)으로 메일을 보내거나 www.unepfi.org을 방문해 주십시오.



UNEP Finance Initiative
Innovative financing for sustainability



UNEP FI Korea Group Newsletter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80 DMC 첨단산업센터 6층
Tel: (+82 2) 3153-7749 Fax: (+82 2) 3153-7703
www.ecofrontier.com

